

나로호 오늘 재발사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를 하루 앞둔 24일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 지휘소에서 연구원들이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황우연 제공)

“이번엔 꼭 날아다오”

유람선 위 관광객들 “성공 발사” 환호 리허설 끝낸 발사통제동 팽팽한 긴장

우주강국으로 갈 첫 번째 관문인 나로호가 비록 7차례 발사가 연기·지연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19일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7분56초를 남기고 발사가 중지됐지만 재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와 그 일대는 연구원들과 관광객들로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다. 발사 하루 전 24일 오후 모든 발사 리허설을 끝낸 나로호는 우주로 날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미 부채바위와 사자바위 등 나로도의 명소를 구경한 관광객들이지만 멀리서부터 나로호 모습이 보이자 이미 유람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육안으로 나로호가 보이기 시작하자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고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수십여장의 사진을 찍었을 무렵 배가 나로호에 가깝게 다가가지 손을 흔들며 일제히 “발사 성공”을 외치기도 했다.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팽팽한 ‘긴장’ 흐르는 발사통제동 = 24일 오후 이미 7차례 발사 연기를 경험한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은 초조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사 및 발사체 추적과 관련된 통제시설이 집약된 발사통제동은 발사지휘센터(MDC)와 발사체통제센터(LCC), 그리고 비행안전통제센터(FSC)로 나뉜다. 그 가운데서도 발사지휘센터는 나로호 발사와 관련된 시설로부터 상황정보들을 보고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발사 여부를 결정하는 곳. 현재 발사지휘센터에서는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사업본부장 지휘 아래 25명의 연구원이 발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조 본부장이 발사 예정 시간 약 20분 전 발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 뒤 발사버튼을 누르면 15분(90초) 자동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조 본부장은 “지난 7년여를 기다려온 만큼 최선을 다해 한국 첫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과학기술위성 교신 리허설도 ‘이상무’

○우리 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를 하루 앞두고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질 ‘과학기술위성 2호’를 관제하고 운용하게 될 지상국에서는 발사 후 시간대별 시나리오에 따라 위성과의 ‘교신’ 리허설이 24일 오후 진행됐다. 이날 리허설에서는 나로호가 25일 오후 5시에 발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발사 후 11시간27분 후인 26일 오전 4시27분부터 16분간 진행되는 첫 교신과, 초기 교신이 가장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인 발사 13시간9분 후인 26일 오전 6시9분부터의 19분간을 가정해 이뤄졌다. 예행연습은 위성과 지상국 사이에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뤄졌을 때와 교

신 안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연구원들은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자 현재 위성 상태의 정보를 지상에 보내라는 명령을 보내는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위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연구원들은 KAIST 인공위성우주센터는 발사당일인 25일 오후 3시에 최종리허설을 가진 뒤 센터 내 ‘최순달 세미나실’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서 중계되는 발사모습을 지켜볼 계획이다. 고흥 곳곳 성공 기원 행사 ○고흥군은 나로호 발사가 25일

제시도 뒀에 따라 영남면 남열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및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발사 성공 염원 행사를 개최한다. 남열해수욕장 행사장에서는 이날 12시부터 고흥예술단 축하 공연과 출항가수 공연, 군민노래잔치, 우주를 향한 응원전 등이 펼쳐진다. 또 오후 4시30분부터는 말티비전을 통해 나로호 발사 카운트다운이 생중계 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인 발사전망대 사업부지, 군도 13호선 해안도로, 용바위, 봉남 등대, 팔영산 등에서도 나로호 발사 성공 축하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 = 주각중기자 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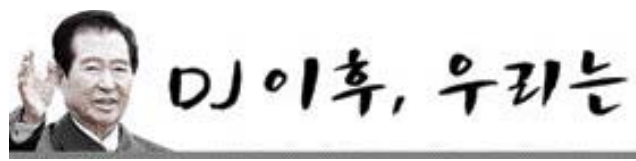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발표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주 만에 발표될 이번 인사에 선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을 비롯해 대검찰청의 각 기관관, 법무부 과장급 등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체제의 주축이 될 중간 간부와 평검사 4승

진·전보된다. 검찰 조직에서 ‘승진코스’로 불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 서열에 따라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 임명될 전망이다. 공안 분야인 중앙지검 2차장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과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박민표 제주지검 차장, 정병하 서울고검 검사(형사정책연구

원 과장)가 물망에 오른다. 특별수사 분야인 3차장은 강찬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문무일 수원지검 2차장,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 이영철 인천지검 2차장 등이 후보군을 이루는 가운데 김주현 대변인이 역시 거명된다. 특히 3차장은 김 총장이 대검 중수부 대신 일선 지검 특수부의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 사정수사의 아전 사령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맞잡은 손’... 햇볕 다시 비추게



3 남북화해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18일 “민주화와 민족 화해를 향한 고인의 열망과 업적은 국민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이 남북 화해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했으며 햇볕정책은 여론에 의해 왜곡됐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발표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문에서는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축으로 한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측 조문단이 2박3일 일정 동안

北 조문단 파견 경색국면 해소 조짐 정부 대북정책 기조 전환 서둘러야

희망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 이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 전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다. 따라서 조문단 파견 이후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의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위급 특사 파견을 통해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새 판을 짜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로도 이야기된다. 남북 관계 개선의 열쇠는 야당보다는 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 대부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수동적이고 패쇄적인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기대하

기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론적으로 대화를 촉구했으나 큰 틀에서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강경 대북정책을 벗어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민족화해의 틀로 구축한 6·15 공동선언이나 10·4 합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여론은 청와대가 이 대통령과

의 면담을 원하는 조문단에 대해 뒤늦게 답을 준 것도, 조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 예의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한 것도, 다른 나라 조문단과 동급으로 대우한 것도 모두 ‘매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 정부는 ‘선 민족 후 국제관계’라는 기조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시했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도 특수 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보편타당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해 조문단에 대해 그렇게 대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민족공조보다 국제공조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24일 “청와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여권은 아직도 지난 두 정권을 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적대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